

# 1. 승무 춤사위에 대한 음양 오행론적 해석

가. 김지희

숙명여자 대학교 체육학 박사

I. 서론	V. 결론
II. 음양오행의 원리와 개념	참고문헌
III. 춤사위에서의 음양오행 원리	Abstract
IV.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이치로 본 승무 춤사위	

## I. 서론

우리나라는 역사적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양하고 풍부한 춤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춤을 즐기는 민족이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춤의 양태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춤은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것은 서양 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상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춤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겨져 있고, 그 문화에는 그것을 만드는 문화적 규칙, 원리, 문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문화의 주류에 우리는 여전히 '서양 닮아가기'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 춤의 사상적 근간과 춤사위의 원리를 동양적 사상체계 속에서 규명하려는 실험적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양의 문화권에 속하며,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동양인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여 왔던 대표적 사상체계인 음양오행은 확연히 동양 춤에 있어서는 사상적 뿌리이자 수행 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음양오행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동양의학의 최대 경전이며 생리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등을 포함한다는 황제내경의 중심사상이며, 세계적으로도 과학적 언어라고 알려진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오곡, 오채, 오가부족, 오행치수 등 음양오행 사상이 문화와 제도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통춤의 사상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최현실은(1988) “오방 처용무 구조”에서 처용무의 구조적 접근법에 있어서 춤의 진행도와 장단을 열거하고 춤의 구성에 대해 음양오행의 배열과 상생, 상극을 대입시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춤사위를 오행으로 분석한 점이 본 연구와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최경자는(1996) “음양오행 사상에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정재의 연구”에서 조선시대의 정재 대부분은 음양오행 사상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연구였다. 또한 신

상미(1999)는 “한국춤 공간에 나타나는 음양오행적 표현 특성”에서 동양과 서양에서 바라보는 음양오행의 개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음양오행의 공간형태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춤 문화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가를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춤문화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 놀이춤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등 민속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음악부분에서도 이런 주제로 연구되어진 자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음양오행론으로 본 한국 음악의 기본 구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용학 부분에서도 새롭게 접목해야 할 학제간 연구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우리 춤이 음양오행뿐 아니라 동양의 사상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자료들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표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음양오행의 사상적 접근은 오행의 추상 수준이 음양보다 떨어지므로 주로 음양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오행 상생상극론은 질병의 발생과 변화를 병리, 생리의 관점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틀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이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음양의 두 가지 성질과 오행의 다섯 가지 木火土金水의 속성 및 상생상극의 이치로 춤사위 접근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전통춤의 백미로 꼽혀지는 승무의 대표적인 춤사위를 오행의 속성으로 대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생상극의 이치에 따른 춤사위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우리 전통춤의 확고한 뿌리 찾기 작업의 일환이자 창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국적불명의 춤사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춤사위를 창작해 낼 수 있는 문화적 문법 체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 II. 음양오행의 원리와 개념

우리 춤의 이론적 체계를 보다 보편적으로 정립하는 시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춤사위들이 어떠한 사상적 근거와 원리체계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추적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전통춤뿐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문화 및 생활 주변에 뿌리 깊게 내포되어온 음양오행을 이론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우선적으로 음양오행을 그 중심내용으로 삼고 있는 음양의 개념 및 원리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행의 속성과 상생 상극 원리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그림과 함께 시도하였다.

음양오행에 대한 개론적 이해와 구성 원리의 고찰은 이 연구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승무 춤사위의 원리체계를 밝히는 것에 대한 이론적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음양의 개념

이 연구에서 동양사상으로 지칭되는 음양오행 사상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동양의 사상체계이며, 지난 몇 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언어, 문화, 사고, 의복, 음식, 건축 등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드물다. 따라서 동양의 사상체계로서 음양의 개념과 원리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 할 때 거기에는 대립되는 두 개의 측면 또는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산과 언덕에서 해가 비치는 측을 양지라 하며 그의 반대 측을 음지라 한다. 이 양지와 음지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양지는 덥고 음지는 보다 차며, 양지는 밝고 음지는 보다 어두우며 양지는 해가 잘 비치고 음지는 해가 잘 비치지 않으며 그들이 생긴다. 여기에서 더운 것에 대하여 찬 것, 해가 비치는 곳에 대하여 해가 비치지 않는 곳, 밝은 것에 대하여 어두운 것 등은 모두가 상반되고 대립되는 두 개의 측면을 이룬다. 이렇게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일반적으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측면이 있다.<sup>1)</sup> 그런데 이러한 두 개의 측면이 사물과 현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모순으로 된다. 때문에 사물은 이러한 모순에 의하여 발생 발전 변화한다. 이것은 음양이론의 기본 도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소문」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도리이며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할 수 없는 규율이며 사물이 발생 변화하고 사멸하는 것이 모두 이 도리에 의하여 진행된다.

때문에 만물이 변화하여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대한 힘이 음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자연계에 살고 있는 만큼 인체도 이 도리에 순응해야 하며 사람의 몸을 이용한 춤 역시 반드시 그의 기본으로 되는 음양의 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음양은 모든 사물과 현상 중에서 대립되는 또는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측면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물과 현상에서 어떤 측면이 양이 되고 어떤 측면이 음으로 되는가는 음양의 상대적인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이치에 기초하여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을 추리하여 볼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 중에서 양의 속성인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무형적인 맑고 가벼운 물질을 이루는 기(氣)는 상승하여 모여서 대기층을 구성하고 음의 속성인 탁하고 무거운 유형적인 물질을 이루는 기는 하강하며 모여서 땅을 형성한다. 음의 속성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고 조용하며 양의 속성은 변동이 많고 동적 상태에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음양의 속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2)</sup>

1) 한상모(1993), 『동의학 개론』, 서울: 여강 출판사, p. 57.

2) 김지희(2003), 한국전통춤에 나타나는 음양오행적 표현, 『한국철학체육학회지』, 11: p. 252.

〈표 1〉 음양의 기본적인 성질

陰	陽
침체된 것	활동적인 것
억제된 것	흥분된 것
안으로 향한 것	밖으로 향한 것
하강하는 것	상승하는 것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유연한 것	강건한 것
쇠퇴하는 것	생장·성장하는 것
사멸해 가는 것	번성하는 것
느린 것	빠른 것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음양은 이상과 같은 대립 또는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양자가 서로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양자는 서로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통일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서로 대립되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측면은 서로 발생 조장시키면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측면이라도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는 없다. 즉 음양의 원리를 ‘동시적 상대성’, ‘연속적 순환성’, ‘통합적 조화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 2. 오행의 속성 및 이치

음양오행 사상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제자백가 시대에 핀 꽃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음양론은 이분법적 사고의 원형으로서 이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오행론의 뼈대인 오행의 상생상극론(相生相剋論)은 이때부터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木·火·土·金·水의 오행은 서양적인 표현으로 5원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희랍의 4원소설(earth, water, fire, air: 또는 불교의 四大인 地水火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두 사상은 상당히 다른 발전 경로를 걷게 된다. 희랍의 4원소는 원래 땅에 속한 것(earth, water)과 하늘에 속한 것(fire, air)으로 보다 세분되어 물질의 구성과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고, 후에 화학, 역학 등으로 발전되어 갔으며, 오행의 5원소는 상생상극론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화 발전되었다.<sup>3)</sup>

여기서 먼저 오행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자 언어적 해석을 보면, 五行이란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의 하나를 行이라고 부른다. 오행을 일명 오운(五運)이라고 하는데 ‘행’이나 ‘운’은 다 같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오행의 다섯 가지 물질은 각각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바 그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3) 장동순(1999), 『동양사상과 서양과학의 접목과 응용』, 서울:청홍, p. 18.

〈표 2〉 오행 속성의 물리적 정의<sup>4)</sup>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行 俗性	부드럽고 따뜻한 전진(前進), 또는 상승하는 기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기(熱氣運)	끈적끈적하여 서로 결합하려는 기운	순간적으로 결합하여 긴장시키고 단단하게 결정을 이루려는 기운	차고 연하고 미끄러운 기운으로서 아래로 향하는 기운

이상에서 오행의 다섯 가지 물질은 서로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 상호간에 각각 다른 특성으로부터 그들 상호간에는 서로 조장(助長), 자생(資生)시키는 상호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으로는 그들 상호간에 서로 제약하며 타승하는 상호관계를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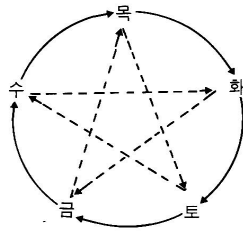
『동의보감』 오행생극순역(五行生克順逆)에서는 강한 것은 약한 것을 공격할 수 있는데 土는 木에 의하여 뚫어지고, 실한 것은 허한 것을 타승할 수 있는데 水는 土에 의하여 막혀지며, 음은 양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火는 水에 의하여 꺼지고, 격렬한 것은 굳은 것을 타승할 수 있는데 金은 火에 의하여 용해되고, 굳은 것은 유연한 것을 제약할 수 있는데 木은 金에 의하여 베어진다고 하였다.

오행은 이와 같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서로 제약하며 타승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으로는 서로 발생시키고 조장시키는 상호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오행의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이다. 상생이라 하는 것은 사물과 현상에서 상호 조장(助長), 자생(資生)시키며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말한다.

상생에는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다섯 가지가 있다. 상생의 이 다섯 가지의 관계에 각기 아생자(我生者)와 생아자(生我者)의 모자 관계(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는바 아생자라는 것은 내가 낳은 자라는 뜻이며, 생아자는 나를 낳은 자라는 뜻이다. 金을 예로 들면 金의 아생자는 금생수에서 水를 말하는 것이며, 생아자는 토생금에서 土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생의 사물을 발생 조장시킨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화생토라고 할 때 이것은 화가 있어야 토를 발생한다는 뜻인바 이것이 마치 초목에 불이 붙으면 후에 재가 남고, 이 재가 흙으로 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된다. 그리고 화는 토를 발생 조장시키기 때문에 화를 모(母)로, 토(土)를 자(子)로 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즉 모자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4) 앞의 책,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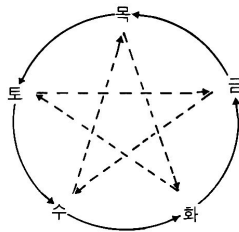
→ 상생 (相生) 을 가리킴  
 - -> 상극 (相剋) 을 가리킴  
 <그림 1> 오행 상생 중에 상극이 있는 그림

위의 <그림 1><sup>5)</sup>은 오행의 상생관계 가운데 상극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으로서 실선의 화살표는 상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선의 화살표는 상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상극에 대한 설명이다.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상호간에 제약하며 타승하든가, 극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상극에는 금극목(金克木), 목극토(木克土), 토극수(土克水), 수극화(水克火), 화극금(火克金)의 다섯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아극자(我克者) 및 극아자(克我者) 또는 소승(所勝) 및 소불승(所不勝)의 상호관계가 있다.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약하는 자라는 뜻이고, 극아자는 나를 제약하는 자라는 뜻이며, 소승은 타승한다는 뜻이고, 소불승은 타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木을 예로 들면 아극자는 목극토에서 토를 말하고 극아자는 금극목에서 금을 말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木의 소승은 土이고 소불승은 金으로 된다.

상극에서 사물의 상호 제약하고 타승하는 연계관계를 비유하여 설명하면 수극화에서 화의 속성을 가진 사물과 현상은 수의 속성을 가진 사물과 현상에 의하여 제약되고 극복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말하자면 불이 물을 때에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상극을 가리킴  
 - -> 상생을 가리킴  
 <그림 2> 오행 상극 중에 상생이 있는 그림

<그림 2><sup>6)</sup>는 오행 상극관계 중에 상생을 나타낸 것으로서, 실선의 화살표는 상극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선의 화살표는 상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상생과 상극은 그 어느 것도 단독으로 고립하여 존재할 수는 없으며 다 같이 존

5) 한상모(1993), p. 70.

6) 앞의 책, p. 70.

재함으로써 음양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중국 의학자 장경약은 사물이 발생 변화하는 데는 서로 상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제약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상생이 없으면 발생 발육할 근원이 없고 제약하는 것이 없다면 지나치게 왕성하고 향진되어 도리어 해로울 것이 되므로 반드시 상생 중에 제약이 있고 제약 중에 상생이 있어야 비로소 사물이 부단히 운동 변화할 수 있으며 서로 상반되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서로 발생 조장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생과 상극은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상으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에 관한 집약적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상극론의 이치가 우리 춤사위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Ⅲ. 춤사위에서의 음양오행 원리

춤사위를 연구함에 있어서, 음양오행설을 분석의 기준 근거로 삼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동양의 역사, 문화 및 삶의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보편적 기준 잣대이기 때문이다. 음양오행 원리는 수 천년동안 동양에 있어서 하나의 세계관이자 만물형성의 인식 체계였다. 따라서 그것은 한국 전통문화의 사상적 토대로서 춤을 비롯한 예술적 세계에 체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전통춤의 춤사위 원리체계 또한 이러한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음양오행의 사상적 원리체계가 우리 춤에 어떤 형태로든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는 전통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춤사위의 원리체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소위 춤사위에 대한 음양오행적 연구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춤사위라는 형체 속에 농축되어 있는 사상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발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에 전개되는 춤사위의 음양오행 연구는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여러 가지 춤사위들을 통하여 그 특징적 원리체계를 정립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면적인 한계로, 일차적으로 1) 음양의 원리에 따른 춤사위, 2) 오행의 속성에 따른 춤사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분석과정에서는 춤사위의 음양오행 속성에 따른 특징적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 1) 음양의 원리

첫 번째, 춤사위에서의 동작 형태에 따라 陰과 陽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陰이란 말은 일광에 결여, 즉 그림자 또는 어둠을 의미하고, 陽이란 말은 원래 일광, 또는 일광과 광선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후세에 발전되어 음과 양은 두 개의 우주적 원리 또는 힘으로 간주되고, 음은 여성, 소극, 한기, 어둠, 습함, 유연 등을 나타내며 양은 남성, 능동, 열, 광명, 건조, 단단함 등을 나타낸다. 이들 두개의 원초적 원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현상은 산출된다. 또한 음양은 항상 사물과 사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성질이다. 음양은 사물에 고정된 성질이 아니고 상대적인 이항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비록 음과 양이 두 단어이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氣의 성장과 소멸일 뿐이다. 전진과 후퇴, 소멸과 성장 등의 반복에 대해 말한다면 나아갈 때는 양이고 물러설 때는 음이며, 자랄 때는 양이고 사라질 때는 음이다. 이렇듯 음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동양 사상에서 태극이란 음양의 원리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마치 밤이 낮의 뒤꿈치를 물고, 낮이 밤의 뒤꿈치를 물어 밤과 낮이 하루를 이루는 것처럼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되는 순환의 원리인 것이다.<sup>7)</sup>

지금까지의 음양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할 때, 춤사위에서의 음과 양의 동작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춤사위 형태에 따라 陰의 분류는 팔 사위 혹은 다리 사위가 아래로 향하는 동작을 陰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몸통이 숙여지고 엎드리며 움츠린 동작을 음의 동작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음의 성질인 모아지고 내려가는 기운을 띤 춤사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춤사위 형태에 따라 陽의 분류는 팔 사위 혹은 다리 사위가 위로 향하는 동작을 陽이라고 하였다. 몸통 역시 펴쳐지고 위로 뻗어져 있는 동작을 양의 동작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양의 성질 중에 위로 향하고 확산되어 가는 가운의 흐름을 가진 춤사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과 양의 분류기준은 팔 사위 혹은 다리 사위가 공간상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다. 즉, 기운의 흐름이 음은 아래로, 양은 위로 향하는 방향을 말한다.<sup>8)</sup>

위의 분석에 의한 춤사위 분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춤사위의 음양 분류

음양구분	음	양
음양의 성질	안으로 응축되고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밖으로 뻗치고 분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춤사위에서 본 음양	팔, 다리, 몸통이 아래(下)로 향하는 동작	팔, 다리, 몸통이(上)로 향하는 동작

## 2) 오행 속성 원리

춤사위를 연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행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방법과 다르게, 춤사위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준 틀로서 오행이 각기 가지고 있는 속성에 근거하였다.

7) 양계초(1994),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진서원, p. 67.

8) 김선영(1995), 한국 춤에 내재된 태극사상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 50.



오행이란 개념은 태극이라고 불리는 통일체가 태역, 태초, 태시, 태소의 네 단계를 거쳐서 태극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음양은 또다시 각각 분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행인 것이다. 지구 위에 있는 삼라만상은 그것들의 성(性)과 질(質)을 일일이 따져볼 때,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오행의 성질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섯 가지의 질적 양태로 구분한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동양사상에서 만물의 속성 분류법칙으로서의 오행체계의 특징은 희랍의 자연철학과 같이 물질 단위만을 가지고 삼라만상의 유동하는 변화를 측정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이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물질의 동정하는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법칙으로써 사물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렇듯이 자연 그대로의 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동시다발적인 현상 인식은 춤사위의 오행 분석 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질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오행의 속성에 따라 춤사위 분석은 다음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춤사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행이라는 기본 틀에 춤사위를 대입시키는 것이므로 다소 중복되거나 제외되는 춤사위 또는 분석이 난해한 춤사위도 있다. 그러나 오행 기운의 흐름으로 춤사위의 기운 흐름을 분석해 본다는 시각에서 실험적이며 개척적인 의도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1) 각각의 춤사위 중에서, 목(木)춤사위는 시작 단계에서의 동작 형태들을 말한다. 팔, 다리, 몸통이 서서히 들어 올려지는 동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화(火)춤사위는 위로 뻗치는 기운으로서의 동작 흐름을 말한다. 팔이 위나 옆으로 펼쳐지고 뿌려지는 동작과 다리가 뛰어 오르는 동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 (3) 토(土)춤사위는 정세와 정세를 이어주는 과도세를 말한다. 또한 어르는 동작과 양팔을 수평으로 들고 있는 무작(舞作)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힘의 균형이 있는 춤사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4) 금(金)춤사위는 안으로 끌어 모아주는 기운으로서의 동작 흐름을 말한다. 또한 흐르던 동작이 멈춰지면서 맺는 동작을 금이라 할 수 있겠다.
  - (5) 수(水)춤사위는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으로서의 동작흐름을 말한다. 팔, 다리, 몸통이 아래로 향하면서, 응축되는 사위, 솟아오르기 직전의 가장 응집된 사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상기 오행의 다섯 가지 분석에 의한 춤사위 분류를 도표로 나타내 다음과 같다.

9) 한동석(2001), 『우주 변화의 원리』, 서울: 개원출판사,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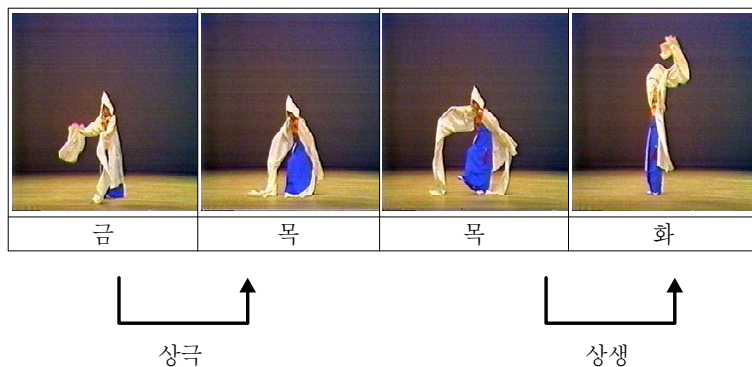
<표 4> 오행의 속성에 따른 춤사위 분류

오행	木(봄)	火(여름)	土	金(가을)	水(겨울)
오행 속성	-웅크려 저장한 상태(水)에서 밖으로 튀어 나가려는 잠재된 용출력으로서 생성기운을 의미한다. -부드럽고 곧추 뻗어 나가는 속성. -동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성장과 분열, 투쟁의 기운을 상징한다. -뜨겁고 작열하며, 연소하여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木·火·金·水가 순환하도록 중화(中和)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양하고 성질이 온하며, 변동이 적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얼매를 맺는 시기로 통합과 결실의 기운을 상징한다. -아름답고 차며, 모아져 굳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축장하고, 새로운 탄생(木)을 준비하는 단계를 상징한다. -차고 습윤하며,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sup>10)</sup>
춤사위 본 오행	-춤사위의 처음 시작을 나타낸다. -팔, 다리나 몸통이 서서히 들어 올려지는 것을 나타낸다.	-위로 향하는 동작. -팔이 위나 옆으로 뿌러지는 동작. -뛰는 동작.	-준비, 연결, 마무리 동작. -양팔을 수평으로 들고 있는 舞作(舞作이란 춘앵전에서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는 춤사위로 춤의 시작을 뜻하기도 함)을 나타낸다.	-안으로 끌어 모아주는 춤사위. -맺는 사위.	-엎드리는 동작. -앉는 동작. -도약 직전의 가장 움츠려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IV.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이치로 본 승무 춤사위

지금까지 음양과 오행의 속성에 따른 춤사위를 분류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오행 속성에 따른 춤사위의 분류 결과를 토대로 승무의 대표적인 춤사위들을 실질적으로 대입하여 분석하고, 오행의 주요원리인 상생과 상극 작용 관계를 사진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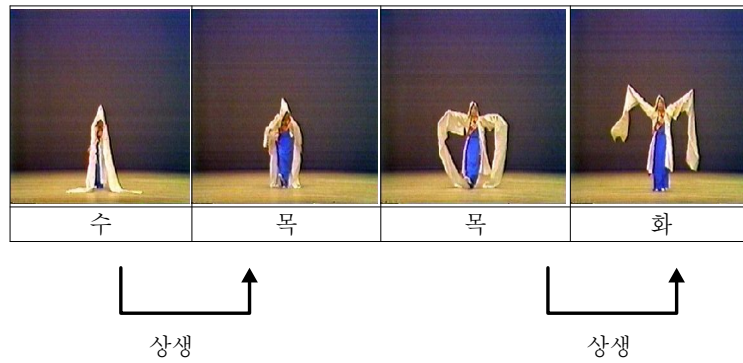
기술적인 연구방법은 먼저 승무의 춤사위들이 나타나는 비디오 동영상을 컴퓨터 편집에 의한 MPG 동영상 파일로 전환 한 후 정지화면을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에서 Capture하였다. 분석의 구체적 범주는 각각의 승무의 대표적인 춤사위 봉숫음, 학체, 필체 중에서 정지된 동작의 이미지와 정세를 중심으로 하였다.



<사진 1> 봉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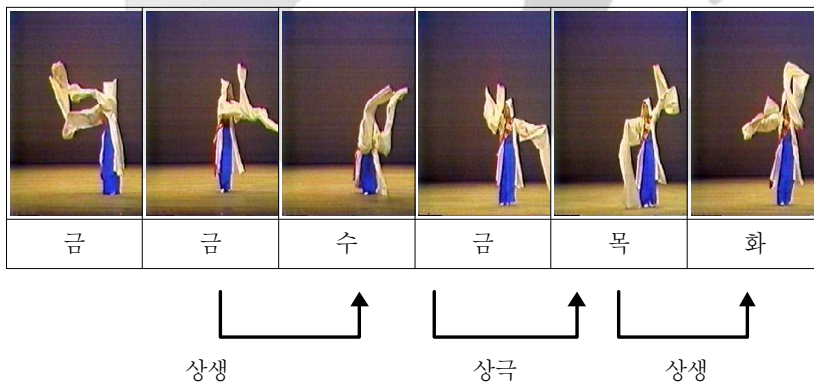
10) 한상모(1993), p. 66.

<사진1>에서는 금극목의 상극관계와 목생화의 상생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뿔뿔이 뿌려진(金) 한삼은 서서히 위로 향해 올라가는(木) 기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위로 서서히 올라가던(木) 양팔의 한삼은 위로 확 뿌려지고(火)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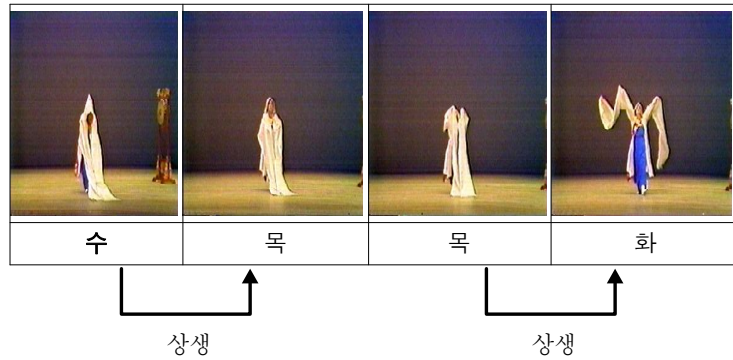
<사진 2> 학 체

<사진2> 학체에서는 수생목, 목생화의 상생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삼이 아래에서 응축되었다가(水), 서서히 위로 날개를 퍼듯 올라간다(木), 또한 위로 서서히 올라가던(木) 한삼은 공중으로 뿌려지는(火)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3> 평 체1

<사진3> 평체에서는 금극목과 화극금의 상극 관계와 목생화와 금생수의 상생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뿔고(金) 풀린(木) 한삼은 용이 꿈틀 거리듯 휘감아지는(火) 형태로 나타나고, 뿔어졌던(金) 한삼은 아래로 모아지며 숙여지는(水) 기운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 4> 필 체2

<사진4> 필체에서는 수생목과 목생화의 상생관계가 나타나 있다. 가장 응축되었던(水)한 삼이 서서히 위로 향하여 올라가고(木), 이것은 마지막에 폭발하듯 펼쳐져 뿌려지는(火) 기운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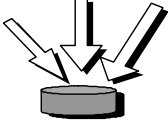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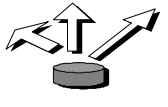
가. 상생관계를 가진 춤사위 특성  
 앞에서 살펴본 승무 춤사위들에서 특징 지워지는 상생관계는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다.

<표 5> 승무 상생관계 춤사위 특성

상생관계를 가진 승무 춤사위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생화, 수생목의 상생관계는 기운이 흐름이 점차적으로 위로 향함.</li> <li>2. 금생수의 상생관계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아래로 향함.</li> <li>3. 호흡의 변화는 들숨과 날숨의 교환 없이 자연적으로 흐름.</li> <li>4. 다리나 팔의 사위도 아래서부터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동.</li> </ol>

나. 상극관계를 가진 승무 춤사위 특성  
 앞에서 살펴본 춤사위들에서 특징 지워지는 상극관계는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다.

〈표 6〉 승무 상극관계 춤사위 특성

상극관계를 가진 승무 춤사위 특성	
	1. 금극목, 수극의 상극관계는 모아졌던 힘이 위로 흩어 뿌러지는 기운의 흐름.
	2. 화극금의 상극관계는 펼쳐졌던 기운이 아래로 하강하면서 안으로 모임.
	3. 금극목의 상극관계는 동작 폭이 크지 않음.
	4. 화극금, 수극화의 상극관계는 동작 폭이 큼.

위의 <표5와 6>은 승무의 대표적인 춤사위들을 사진 분석한 것을 오행의 주요원리인 상생상극 이론에 대비시킨 결과이다. 춤사위에서 보여 지는 상생 상극의 원리는 오행의 것과 같이 상생의 힘으로 나타날 때는 서로 도와 순조롭게 기운의 흐름이 이어지고 동작의 진행이 부드러운 반면 상극의 춤사위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극의 춤사위는 동작 폭이 크고 역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동작이 크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하여 창작을 한다면 춤사위의 재조명은 물론 춤을 구성하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 V. 결론

이 연구는 우리 전통춤에 내재되어 있는 춤사위의 체계가 동양사상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전제 하에 승무의 대표적인 춤사위들을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우리 춤사위의 이론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시도된 이 연구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 음양오행 원리의 사상적 및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에 따른 춤사위의 음양오행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분류되어진 결과를 토대로 승무의 대표적 춤사위들을 이 연구의 중심과제인 오행의 상생 상극이론에 대입하여 어떠한 특징적 원리체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춤사위의 음양오행 분석은 다음의 3가지 특징적 요인들로 명료화 할 수 있다.

1. 음(陰)춤사위 특징적 원리체계는 신체가 응축되고 모임과 공간적 측면에서 下 지향적이었다. 호흡은 내뿜어서 기운이 내려가는 날숨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2. 양(陽)춤사위 특징적 원리체계는 신체가 퍼지거나 튀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간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上’이며, 호흡 역시 들숨을 하고 있어 기운의 흐름이 ‘上’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3. 오행 속성에 따른 춤사위 특징적 원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목(木)의 속성을 지닌 춤사위는 신체가 점차적으로 퍼지고 봄에 꽃이 피어오르듯이 춤사위도 조용하고 곧게 혹은 휘면서 위로 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흡도 들숨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2) 화(火)의 속성을 지닌 춤사위는 신체가 펼쳐지고 팔이 뻗어지며 다리는 도약하는 성질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간적인 면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3) 토(土)의 속성을 지닌 춤사위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평준함을 지키고 있다. 또한 춤사위와 춤사위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춤사위를 마무리 할 때나 다음 춤사위로 도입하기 전에 준비 자세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토의 속성은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춤의 특성상 춤사위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없다.
- 4) 금(金)의 속성을 지닌 춤사위는 맺는 춤사위로 ‘정중동’에서 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머금은 호흡으로 하단전에 기가 모인다. 이것은 맺고 감는 동작으로, 풀어졌던 움직임이 한 번에 응축되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 5) 수(水)의 속성을 가진 춤사위는 신체의 높이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흡 역시 날숨의 형태로 기운이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용수철이 텅져지기 직전의 가장 응축되어진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한 춤사위의 원리체계는 승무의 춤사위들을 상생 상극이치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승무의 대표적인 춤사위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생(相生)관계를 가진 승무 춤사위의 특징적 원리체계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점진적인 움직임의 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호흡의 흐름도 들숨으로 시작하면 들숨으로, 날숨으로 시작하면 날숨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둘째, 공간 역시 점진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움직임의 흐름이 원활한 태극선을 만들고 있다.

상극(相剋)관계를 가진 승무 춤사위의 특징적 원리체계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춤사위의 폭이 커서 격동적임 느낌을 받는다. 또한 움직임의 진행을 막아서 흐름이 깨진다. 이러한 원리는 질그릇 같은 투박한 멋으로 나올 수 있다. 둘째, 상극관계의 춤사위는 자연스러운 태극선을 그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 위로 향해 올라가다가 막히고, 편안하게 중앙에 있던 기운은 아래로 갑자기 내려가 버리는 부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전통춤의 기본 정신과 이것이 용해된 춤사위를 규명한다는 것은 계량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통한 이론체계에 대입한다는 단순한 작업만은 아니다. 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춤 구조 내지 원리에 관한 연구는 우리 춤의 특성을 얼마만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기본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인접학문과의 교류와 접목, 그리고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국춤의 이론화 작업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시도된 음양오행으로 본 춤사위는 우리 춤의 계승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시각에서 실험적이며 개척적인 차원으로 수행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김태진(1985). 『오행상극설과 진화론』, 서울: 삼한출판사.
- 민족문화추진회(1989). 『樂學軌範』, 제 1권.
- 박용숙(1981). 『한국미학사상』, 서울: 일원서각.
- 사송령(1994).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서울: 연암출판사.
- 양계초, 풍우란(1994).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진서원.
- 장동순(1999). 『동양사상과 서양과학의 접목과 응용』, 서울: 청홍
- 채희완(2000). 『한국춤의 정신은 무엇인가?』, 서울: 명경.
- 한동석(1991).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사
- 한상모 외 공저(1993). 『동의학 개론』, 서울: 여강출판사.
- 풍우란(1994). 『중국철학소사』, 서울: 이문출판사.
- Capra. F.(1979).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범양사.
- Boyne. R.(1990). 『Postmodernism and Society』, London: Mac- Millian.
- 김미숙(2000). 한국 놀이 춤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 pp. 61-86
- 김선영(1995), 한국 춤에 내재된 태극사상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희(2003). 한국 전통춤에 내재된 음양오행 분석을 통한 한국적 춤교육 방안 모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희(2003). 한국 전통춤에 나타나는 음양오행적 표현, 『한국체육철학회지』 11(1): pp. 247-268
- 김연정(1996). 승무와 살풀이에 나타난 움직임의 원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수(1986). 승무의 춤사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백현순(2002). 승무 춤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2): pp. 487-498.
- 신상미(1999). 한국춤 공간에 나타나는 음양오행적 표현특성, 『대한무용학회지』 28: pp. 27-94.
- 우실하(1995). 음양오행론으로 본 한국 음악의 기본 구조, 『민족음악 겨울학교 자료집5』
- 이애주(1995). 승무의 구조와 춤사위 연구 『한국민속학』, 27: pp. 283-313.
- 이현정(1993). 궁중무용에 나타난 음양오행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학선(1997). 한국춤 동작의 기본구조와 원리, 동양음악학 국제 학술회의, 3: pp. 73-290.
- 정용진(2002). 승무의 춤사위에 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은혜(1995). 처용무의 동양사상적 분석을 통한 무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조향숙(1991). 승무의 춤사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최경자(1996). 음양오행 사상에 영향 받은 조선후기 정재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원선(1998). 승무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움직임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현실(1998). 오방 처용무 구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bstract

### An Application of the Yin 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to 「Seung-Moo」 Movement Analysis

☞ Ji-Hee Kim,  
*Doctor of Philosophy*  
*Major in Physic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new analysis methodology for Seung-Moo movement based on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The following two were characteriz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1. The system of principle of movement with synergy relationship represented as follows.
  - a) It represented a gradual moving line so that breathing is also gradually changed in several types.
  - b) Every movement is intended toward same direction in space.
  - c) The flow of movement is directed into Taekuek line.
2. The system of principle of movement with mutually destructive relationship represented as follows.
  - a) It seems a dynamic form of movement because the range of movement is large.
  - b) It would not represents natural Taekuek line.

As a results of this study, the newly developed analysis method can be applied to choreograph as well.



к с і